

宗教 定義의 批判 (三)

哲學博士 金永羲

『宗教는 性愛에서 原因되었다. 原始的, 心理的 精力 或은 『리비도』의 認識的 行動에서 發生된 種族的 □夢과 象徴的 幻影이고 그 種族的 性的 生活이 發達되는 幻想이다.』--라고 『응』은 論하였다. 그러나 宗教가 渴望하는 사랑은 抑壓과 無表現에서 出生된 畸形的 性的 사랑이 아니라 最上의 實在인 大愛 속에 自我의 主된 가슴을 充足시키려함을 엿지하라. 性的 사랑을 發現하지 못하는 者로 宗教의 機關을 찾거나 性慾의 表現으로 影響받은 宗教的 禮式이 있음도 事實이겠고, 性生活이 象徴되어 表現되는 것을 歷史 讀者로는 만흔 宗教生活에서 차츰 것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宗教 自體가 性慾 發現의 畸形的 產物은 아니다. 性的 사랑보다 더 宇宙的, 大我的인 全體와 調和되는 사랑을 宗教는 찾는다. 하늘에 깔려있는 億萬 별들을 보고 그들을 움켜잡는 큰 사랑 속에 平和와 活力을 어드려 하는 바가 宗教의 認識일 것이다. 性的 生活만 圓滿하면 熟眠하는 者에게 꿈이 업듯 宗教生活이 업서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滿滿한 性的 生活의 샘을 마시고도 더 願하는 그 性的 사랑이 支流가 되어있는 그 本줄기인 大愛 속에 살려는 것이 宗教이다. 『宗教는 神이란 觀念을 創作하는 能力을 말함이라.』고 或者는 말한다. 神의 實在 不存在을 論議함보다 神의 性格으로 推仰하는 그 觀念을 性的 努力의 機具로써 宗教生活이라 한다. 사람이 마치 言語나 技術을 創作, 發展하는 것과 가티 調和함이라 主張한다. 卽 『발테아』가 皮肉的으로 말한 듯이 神이 眞正 업으면 人類는 한 분을 適當히 創作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슬적 뒤집어, 우리는 自我와 環境을 調和식힘에 神의 觀念을 必要한다. --라고 主張함이다. 卽 그러타고 그러한 觀念을 가진 神이 存在한 듯이 信仰하고 그 觀念 畚을 가지고 性的 努力을 進行시키려한다. 그러나 이 定義는 宗教의 □□의 經驗을 除去한 社會學的 考察이다. 사람은 宗教的 經驗에서 神의 觀念을 願하는 것이 아니라 神 自體를 要求한다. 사람의 가슴이 뜨거운 사랑이 쭈면서 그 사랑을 밧고 그 사랑을 살리어줄 對象을 求할 때 그가 願하는 것은 實存한 自記와

가티 썬는 가슴 쓰겁히는 두 썬을 가진 人格이어야한다. 업는 사랑의 對象을 잇는 듯이 밋고 性的 努力에 사랑의 觀念으로 나아갈 사람이 업다 하면 神의 觀念 썬으로 自我와 環境의 調和를 進行할 수 업슬 것이다. 사랑이 업시 살 수 잇는가? 업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가 잇다면 썬 問題어니와 사랑은 그 사랑의 主體者를 要求함과 가티 宗教 업는 이가 업슬 바이나, 그러한 이가 잇슴은 썬 問題로 하고 사람은 宗教에서 宇宙를 支配하는 그 主動者 自體를 願하는 것을 잇지 말어야 한다.

『宗教는 顛倒된 世界意識이다. 그러나 그 意識을 만들어낼 世界 自體가 顛倒되어 잇슴으로 宗教라는 顛倒된 世界意識이 만드러진 것이다.... 宗教는 民衆의 幻想的 幸福이다. 宗教的 苦難은 現實的 苦痛의 表現이며 그것에 對한 抗辯인 것을 意味한다. 宗教는 抑壓된 生的 嘆息이다.』 --라고 맑스主義者들은 主張한다.

그러나 엇더한 制度에 얼키어서 病든 社會에서 精神錯覺된 사람이 가지는 意識에 宗教는 生存하는 것이 아니다. 顛倒된 世界도 업스려니와 世界意識을 좀 더 意味있게 合理化하게 가지면서 社會의 모든 制度를 革新하여 나아가려는 것이 宗教이겟나 宗教는 宇宙를 靜的 社會制度를 不變的이라 아니한다. 宇宙도 動的 發展의 途中에 잇고 社會制度는 革新되지 안는 것이 업겟다. 顛倒된 宇宙가 업기도 하려니와 잇다하면 그것을 바로잡어 進行식히는 거기에 存在의 價値가 잇겟다. 더욱히 抑壓된 生的 歎息이 아니라 不合理, 無價値한 生을 좀 더 合理化하면서 더 큰 價値를 주려는 生的 싸힘이다. 묵어운 짐에 눌러서 헐덕이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들어 더 지면서 힘있게 서는 것이 宗教이다.